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
논의 부적절
L1

GS칼텍스
난방유
나눔봉사
L2



‘다’군 창의ICT공과대학 전공개방 모집… 1년간 전공 탐색 기회



총 모집인원 44%, 1925명 정시 선발
각 탐구과목 변환표준점수에 가산 5%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는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총 모집인원의 44%인 1925명을 선발한다. 가군, 나군, 다군 모두에서 학생을 선발해 수험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수능일반전형을 통해 총 1687명을 선발한다. 대부분 학과별 모집을 실시하나, 전년도와 달리 ‘다’군에서 창의ICT공과대학을 전공개방으로 모집한다. 전공개방모집은 단과대학으로 합격한 뒤 해당 단과대학에 속한 학과를 선택하게 된다. 선택한 학과에서 1년간 수업을 들



중앙대는 수험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시모집 상담해피콜’을 운영한다. /중앙대

고 적성에 맞지 않으면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가’군에서는 약학부, AI학과, 글로벌금융, 공공인재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등 626명을, ‘나’군에서는

의학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생명과학과, 경제학부, 심리학과 등 617명을 선발한다. ‘다’군에서는 소프트웨어학부, 경영학부 그리고 전공개방으로 모집하는 창의ICT공과대학 등 444명을



수능 100%로 뽑는다. 단, 체육교육과는 실기 없이 수능 80%와 서류 20%로 선발한다.

수능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반영비율

은 모집단위별로 상이하다. 인문계열의 사회과학대학, 경영경제대학, 간호학과는 국어 30%, 수학 40%, 사회/과학 탐구 30%를 반영하고, 그 외 인문계열 모집단위 전체는 국어 35%, 수학 30%, 사회/과학 탐구 35%를 반영하며, 전체 자연계열 모집단위는 국어 30%, 수학 35%, 사회/과학 탐구 35%를 반영해 선발한다.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한다.

사회/과학탐구 점수 적용에도 변경 사항이 있다. 탐구 선택에 따른 모집단위 지원 제한은 없지만 인문대학과 사범대학 지원자가 사회탐구를 응시한 경우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학탐구를 응시한 경우 각각 탐구 과목의 변환표준점수에 가산점 5%를 부여한다. 경영경제대학과 사회과학대학, 간호학과(인문)는 탐구 과목과 상관없이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중앙대는 수험생의 컨설팅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시모집 상담해피콜’을 운영한다. 수험생들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정확한 데이터인 전년도 입시 결과와 대입 성적 예측 기관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자료를 함께 분석한 합격예측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모든 전형 수능 100%… 자기주도형 인재 양성 교육체계 구축



계열별 선택과목 제한 없이 지원 가능
AI융합대학 등 첨단분야 학부 신설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박정운)가 올해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에서 전체 모집인원(3729명)의 42.3%에 해당하는 1576명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정시모집 선발 인원은 정원 내 일반전형 1391명, 정원 외 특별전형(농어촌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85명이다. 군별로는 일반전형 가군 330명(서울캠퍼스 210명, 글로벌캠퍼스 120명), 나군 609명(서울캠퍼스 377명, 글로벌캠퍼스 232명), 다군 452명(서울캠퍼스 115명, 글로벌캠퍼스 337명)



한국외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경계를 허무는 융복합 교육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한국외대

명)이며,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나군 50명, 다군 51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나군 42명, 다군 42명이다.

모든 전형은 수능 100%로 선발한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24년 12월 31일 10시부터 2025년 1월 3일 오후 5시까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지원자격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2025년 1월 7일까지 한국외대 입학처로



우편 발송해야 한다. 최초합격자 발표는 일반전형 2025년 1월 31일, 특별전형 2월 7일 예정이다.

한국외대는 정시 모집 모든 전형에서 수능 성적으로만 신

입생을 선발한다. 전형방법 간소화와 전형준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전형은 물론, 정원 외 특별전형(농어촌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수능 100%를 실시한다.

한국외대는 모집단위의 계열에 따른 선택과목을 지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수험생은 수학 영역의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 탐구영역의 사회/과학탐구 선택에 제한 없이 인문/자연계열 모

집단위 모두에 지원 가능하다. 다시 말해 통상적으로 인문계열 모집단위 지원자가 주로 선택하는 수학 영역의 확률과 통계와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도 자연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할 수 있다.

한편, 한국외대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적 사고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체계를 대대적으로 혁신했다.

특히,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학과 간 경계를 허무는 융복합 교육과정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AI융합대학 등 첨단융합 분야 학부를 신설해 어학·지역학을 기반으로 한 타 학문 분야와의 융·복합을 추진하고,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무전공 선발을 확대·개편해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8개 계열 130명 선발, 모집인원 많아 중위권 수험생 ‘주목’



백분위점수 기준 우수 3과목만 반영
학생부 반영·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어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는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총 130명을 선발한다. 군별로는 ‘가’군에서 81명, ‘다’군에서는 49명을 선발한다.

전년도 대비 올해 변경된 사항으로는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됐으며, 경제통상·국제지역계열에서 모집했던 일본학 전공은 올해 신학·인문융합계열에 포함돼 모집한다.

한신대는 8개의 계열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는 1학년 때는 전공을



한신대는 올해 일본학 전공을 신학·인문융합계열에 포함했다. /한신대

탐색하고 2학년 진급시 전공을 선택하는 것으로, 모집단위가 크고 모집인원이 많아서 안정적으로 합격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합격선이 평균보

다 다소 낮아지는 경향도 있어 중위권 성적의 수험생들이 주목할 만하다.

정시모집 전형에는 ▲일반학생(해당 모집단위, 수능 100%) ▲일반학생(특



수체육학, 수능 60% + 실기 40%) ▲기회 균형 선발(수능 100%) ▲농어촌학생(수능 100%) ▲특성화고교졸업자(수능 100%)가 있다. 모든 전형에서 전년 도와 동일하게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으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 또한 없다.

수능 반영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 중 백분위점수 기준 우수영역 3과목만을 반영하며, 우수영역 과목 순서대로 50%, 30%, 20%로 계산한다. 영어는 절대평가 반영방법에 따라 등급을 활용한 변환백분위로 반영하며, 한국사는 가산점을 전형총점에 부여한다.

올해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월 3일 오후 6시까지이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원서 접수만 가능하며, 한신대 입학안내 홈페이지 또는 진학어플라이를 이용하면 된다. 서류제출 기한은 2025년 1월 15일 오후 5시까지로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한신대는 2021년부터 강성영 총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학경영 및 발전계획인 ‘한신비전2030’를 수립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 2021년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돼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약 100억원을 받고 대학발전계획에 따라 다양한 대학혁신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